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15th N.E., Seattle, WA 98125 Paul H. Shin, Publisher Shi Chung Park, Editor

VOL. 2 NO. 8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ct. 1975

한인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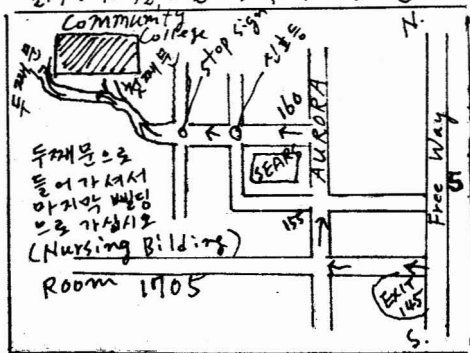
- 11월 8일로 박두 -

해마다 11월 둘째 토요일에 열리게 되어있는 한인회 정기총회가 오는 11월 8일로 박두했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의 한인사회의 사업보고, 결산보고, 임원선거, 이사선거 등의 사항이 다루어 되는데, 1976년도 정기총회를 이끌었던 임원선거도 다른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가 될것 같다.

임원선거의 주요절차를 개략하면 세척공고(9월 30일까지 공고했음), 입후보자 접수(10월 25일 마감), 입후보자 공고(10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정기총회에서 그간 공고한 입후보자 중에서 한인회 회장 1명, 이사 4명, 회관설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게 될것이다.

유권자 자격은 1975년도 한인회비를 11월 8일까지 납부한 자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가능한한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인회의 중대사업을 논의하는데 참석해 주실것은 물론,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시키는데 주요인물이 될 임원들을 선출하는 신거리를 배양할수있이 행사에 참석할것을 기대하고 있다. 총회장소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장소: Shoreline Community College
16101 Greenwood N.
Nursing Building Room 1105
일시: 11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로회 개최 예정

윗 어른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이 보답하는 것은 그사회의 문화와 최후를 도운뿐 아니라 가장 자선적인 인간의 태도라. 특히 우리 한인들은 노인상에 사상을 오랜 전통으로 물려 받아온 자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 라수교회의 천과 성덕력으로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경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다음의 조항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몇몇 한인 기업체 및 독지가들로부터 보조를 얻을수 있게 되어 (본인들의 청에 의하여 일일히 성병의 입원을 생략할) 10월 25일 이 경로회를 가지 계획했다.

이행사는 앞으로의 한인사회가 조화나서 맑은 빛을 보여주는 초인이 될 것이 아니라 특히 이국땅의 선진화 속에서 오는 고독과 불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갈래어 잔서 나야 우리 노부노부들을 위로하여 드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수 있게 해라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고있다.

이날을 위하여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거액모화와 관계로운 오락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즐거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의 노부노부 친지를 모시고 있는분은 빠짐없이 고문들을 모시고 이 잔치에 참석 이날을 즐겨주기를 기대하고있다.

그참가 요령과 간판한 순서를 기재하면:

1. 참가자격 연령 및 구분: 역시 55세 이상의 남녀 어른과 그분들을 동반하게 될 가족 및 개인
2. 회비 (입장비): 7.55세 이상의 어른 ... 무료
L. 동반가족 및 기타 동반인 ... 1인당 \$2.00
3. 잔치순서:
7. 4:00 P.M - 5:30 P.M ... 거북사.
L. 5:30 P.M - 6:30 P.M ... 오락순서
C. 6:30 P.M - 7:00 P.M ... 고전개역화
4. 장소: * (개명저 초대장에 알려질것임)
5. 일시: 1975년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4시-9시

특히 이날오후는 부인회에서 준비하는 한국고유의 음식과 음주가 제공될것이며 고전 음악, 고전무용의 출현이 이어 질바늘이라 노부노부들의 자기자랑 순서들라쳐주은 푸로그램이 준비될것이며, 그이 이어서 한국의 이보쳐프를 보일 몇편의 영화상영이 있을것으로서 즐거운 저녁이 예상된다. 추후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인데 장소는 그때 알릴것이다.

건축위원회 주최 '한국의 밤' 성황

지난 9월 27일 Nile Temple에서 건축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 이 건축위원회 회장 김현중씨의 사회로 열렸었다. 이날밤의 행사에는 6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날밤의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날밤의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날밤의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육군 김일병'이란 영화상영에서는 120# 28¢의 이익금을 남겼는데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리콜로아 레산'이라는 속담을 믿고 이러한 행사를 계속 하리라 한다.

그러나 '한인회관 건축'은 아직도 요원하다. 하나의 우리 한인들 힘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 모였을 뿐이다. 건축위원회 회장 김현중씨는 이회관설립 특권이 한인교로 모두를 위한 것임에도 혼자서만 힘써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총력적으로 모두가 불심양면으로 관심과 협조를 기원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 라는 정신이래 위성된 주기도 한이 의힘이 꼭있어야 하는 열정이 간절할 때에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한편 '한국의 밤'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장은 물론 부회장 김일병씨 그 밖이 많은 분들이 불심양면으로 수고한 아까지 많았을을 알리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헌금해 주신분과 약속해 주신분은 다음과 같다. (헌금 차례순, 평칭생략)
박제민 5\$, 진자 20\$, 김현중씨 20\$, 오준걸 20\$, Pitts, Mu Hyon 10\$, Burris Chae Lim 20\$, Dr. Dan Lee. 100\$, Miss Kim (Arirang) 20\$, Mrs. Ahme T 10\$, Mrs. Masaki 10\$, Charrom Pok Cha 10\$, Peal. Nam Chu 10\$, 권계상 30\$, 권황자 10\$, Jorgensen Albert 20\$, Peking Restaurant 30\$, Chong. Chol 10\$, 이창희 100\$, Five Seas 30\$, Home Grocery 30\$, Seattle Golf Club \$50, 김홍희 50\$, 합계: 685\$

씨아들-워싱턴 한인사회 이번호
- 그것을 위한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 -

한인회 교무부에서는 씨아들-워싱턴 한인사회의 이번호를 써야하는데 교무부 직원들이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교무부 직원들이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저는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교무부 직원들이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저는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교무부 직원들이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저는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교무부 직원들이 몇몇 회원과 색채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는데...

아리랑 밤 준비

한인회 일원회에서는 한인들의 연중 행사로 되어있는 '아리랑 밤'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씨아들 거주 한인 예술협회 발족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 박상선선생님께서 예술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예술협회의 회칙은 첫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예술에...

한편 이 협회는 이발, 입원선술과 각 문과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 과별과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조치사항) 일원 - 회장: 박상선 부회장: 김경희...

박상선선생님 '월해 시조집' 출간
배달 친목회 회장으로 계신 박상선선생님 이번에는 시조집을 출간했다. 선생님의 민족에 대한 애정은 선생님께서...

한편 무용부는 무용 연구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고전무용을 배우고 싶은 분은 522-2658 (예술협회장)으로 연락하십시오. 바란라, 또한 미술부도 앞으로 아동미술 연구소를 열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인 주소득에 기재할 값고 신청 요령
1975년 76년도 한인 주소득에 광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요령에 의해서 김창성씨에게 연락하십시오.



씨아들-워싱턴 한인 주소득 증보
1975년 76년도 한인 주소득 증보... 이 시조집은 1975년 76년도를 맞아 한인들의 새로운 일원들이 한인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모델이기도 하다.

5년 76년도 '씨아들-워싱턴 한인 주소득 증보' 위원 책임자로 임명하고 정확하고 가담 완성된 주소득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쇄에는 김경희씨가, 표지 및 기타 디자인에는 신부씨가, 그리고 광고 모집 및 경비 확보에는 김창성씨와 재무 Mrs. Smith가 각각 맡아서 수고를 할 것이다.

한편 이 협회는 이발, 입원선술과 각 문과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 과별과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조치사항) 일원 - 회장: 박상선 부회장: 김경희...

한인 주소득에 기재할 값고 신청 요령
1975년 76년도 한인 주소득에 광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요령에 의해서 김창성씨에게 연락하십시오.

- 1) 김창성씨 연락 전화번호: 624-2227 (오전 9시-5시), 624-2228 (), 776-7115 (오후 6시 이후)
- 2) 광고 크기 및 해당 요금: T. 마지막 제-지 안쪽 온장: \$80.00, L. 1회 제-지 온장: \$75.00, D. 1회 제-지 만장: \$50.00, R. 1회 제-지 1/4: \$30.00
- 3)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2)의 크기 및 요금을 통 전화로, 1)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자신이 Design하며 그것을 김창성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계약한후 1 Design을 김창성씨에게 보내기 바란다. 광고는 선불로 요한다.
- 4) 연락 마감일: 1975년 10월 30일

워싱턴 대학을 거처간 한국사람 일군

최초에 두번일린 과거와 현재를 이치 방 한국인 들이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내려니 한인회 오케스트라 교무부 위원인 박상선씨를 소개합니다. 박상선씨는 22년이나도 회원의 동정에 대한 변명이 있을 경우 속히 한인회로 돌아와서 회비를 정액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전화: 624-2227 또는 776-7115) 수년전 처음이 한인회로 돌아왔을 때에 몇 제까지 되지 않았던 것이 1974년 75년도 회기에 94 제이까지 증가되었고 다시 1975년 76년도 회기에 주소득은 2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증가한 씨아들-워싱턴 한인회의 증가 발전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한인회입니다.

제가 55년에 보스턴에서 씨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학생이 있었으니 그는 미국이 수려한 청년이었다. 한인회장이던 정소영군으로 알고보니 그때까지 만나지는 못했지만 잘 아는 친구의 지척이었다. 취미는 건공하는 수재이었다. 지금은 농수산부장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군과 가까운 사이로 너나 하면서 같이 취미생활하는 두 청년이 있었으니 하나는 김형근군 다른 하나는 조동삼군이었다. 정군이 첫번으로 학위를 마칠무렵 조동삼군은 라디오를 듣다가 가주대학에서 농업경제학 학위를 끝내고 곧 그곳립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금강회 객지에서 술을 거두었다. 동석한 일이었다. 이어 김형근군이 경영학으로 학위를 받고 곧 이대소라 주립대학으로 가서 계속 교수와 연구를 하고있다. 이 두 청년이 정소영군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있던 시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상훈군으로 가주주 최부부에서 근무를 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소영 학생회장이 가끔씩 여러가지로 도와주어 고맙다. 언젠가 한 번 들어 보았더니 그 당시 교직원들은 학생을 위해서 스물 여섯 정도로 한인회는 가져볼 정도로 내지 않고 있는 형편임을 알았다. 한인회는 아주 뒷날까지 없었는데 그것은 그럴수밖에 없었다. 한인회가 모든일을 천천히 잘해 나가고 한인회는 엄격하게서 조금도 서색움이 없었다. 이런런 것이 나중 구부회로이 한인회 책임을 맡았을 때라. 교주수도 그 사이 늘고 하여 어떻게든 생각하면 차이 선복군이 오늘날의 유니버시티 카우어에 자취를 버리고 여러사람을 불러서 한인회 구성을 의논하게 되어 여러번 거듭된 모임에서 드디어 한인회를 시작하는 일을 구해내기로 했었던 것이 오늘날의 한인회의 시작이다. 고금의 느낌 불우하리 이선복군께 무척 고맙다. 워싱턴 대학을 마친이로 지금 씨아들에서 자리잡고 자기사업일로 정무기판

일로 기쁘게일로 등 여러번으로 씨아들 재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있는데 김흥식 김현중 안병영 구병화 김재호 송준근과 같은 이들로 앞으로 한국출신들이 씨아들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려는 이들이 많다. 한국노래를 선풍하여서 언제나 편을 어울리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서울서 활동중인 사장인 박용근은 그리고 박준과 같은 사업계에서 중역으로 공헌하는 박용근을 생각한다면, 내가 앞수를 하는 데는 남에게 배치지 않는 최이나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언 발치에서 보니 박군이 지나가고 있었다. 박군 미안하고 불렀다. 아주 친절하게도 동락한 얼굴을 번거거리면서 오러니 어서 부드러웠나.

제어음은 박용근입니다. 이름은 고서기 고창주려. 사입니다. 오빠는 애초부터 아입니다. 아니! 자매친구들이 오비라고 부르잖아. 아니요. 제집에서 오비 맥주회사하고 있어 친구들이 그렇니다. 오! 그러! 이 오비군이 서울에 있는 이 동창회가 모임 때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이니 무슨 연유요? 너 자립해 가라. '不問可知不問而行' 같은 경영학부에서 매를 이대학에서 자는 박수현군은 지금 서울대학 경영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 대학에서 편입반이나로 가서 학위를 얻은 안병길군은 서강대학 경영학과의 책임을 오래했었다. 중 앙대학에서 사주구장으로 일 많이 하는 김원정군도 이곳에서 경영학으로 석사가 되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생산본부에서 일 많이한 강교출신의 좋은 청년이었다.

한인회 이야기가 됐으니 밝이나 지금 와서는 한인회가 된 것은 못해도 꼭 하게끔 되어있는 성원할 전후에 있는 아리랑 나이트는 건후와에서 공부하던 정진수군이 그가 학생회장일때에 대학에서 지어지한 필사시인, 노년의 큰 글을 빌려서 장식으로 꾸며 놓는 모임을 가진데서 연유한다. 지금 정군은 한국것으로 석사논문 쓴 독립출판사와 서울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부인의 송준순씨는 씨아들에서 드물 정도이었다. 이부인이 강희준군과 김종선군 그리고 미생물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버클리 가주대학에서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오강모군의 부인 최여사가 전후해서 역사로 학위를 마치고 강군 김군은 하와이와 로드 아일랜드 대학들에서 일하는 중역 교수가 되었다. 최부인은 한문자로만 라는 賢夫人으로 미국사가 전문이었다. 역사에서 한국 것을 전문으로 한 김재현은 석사를 마치고

클래어 브로에서 끝내고 지금은 회사에서 가르치고 있다. 서울에서 한미관계와 미국사로 경제학과 중앙대학에서 각각 교수를 하고 있는 이병식 신성권 이영범 군들로 생각난다. 이병식군과 같은 부류의 의의변군이 같은 방편을 공부하고 있었는 데 일찍이 이승을 하직하여 애석했다. 이병식군은 서울서 학위를 얻었는데 이래 학위서는 리어더 루드비히의 한국에 대한 정치가적 견해(?)를 다져쳐서 쓴 것이 석사논문이었고 신군은 하바드로 가서 끝냈다. 신군은 이대학에서는 석사논문으로 1882년 한미조약의 체결을 두번 부가 어떻게 끝나도록 해쳐하는가를 읽었는데 미국이 일본이 야릇이 놀때 최한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썼다. 하바드에서는 내가 그곳에서 지도한 맥도날드 군이 조선조 효종 임금때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로서 관계사로 학위를 얻었기에 1910년 이후의 두나라 관계를 쓰도록 조인했던 것이 생각난다.

오늘날의 고려대학 사회학과를 창설하는 첫걸음부터 물리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창성군은 버섯을 찾아내고 곰나물을 기우어 내는 재주도 자기 전문분야의 학문 이상으로 잘했다. 전에도 씨아들에서 살 때는 한국 학생들은 쪼라는 말로도 라 잘했다. 과학학에서만 보아도 지금 포교인 신하락학에서 공헌하고 있는 김원정군 최군이 끝낸 우영덕군들은 도일같은 존재들이라. 지금 가주에서 교수직을 맡는 사업가들 평범 유종하군도 있다. 유군은 한인회 모임때면 그 과공학계 부침을 많이 맡아 맡아지는 노력을 부는 '장사'를 악가이었다. 보고싶다. 약학으로는 석사사래를 마치고 동우로 가서 학위를 마친후 모교 서울 대학에 있는 김병각군이 있는 군은 무척 젊잖은 학도이었다. 같은 서울에서 큰 해운사를 책임지고 있고 이대학 동창회 빌로 들곳 애반이 써주는 왕래는 회장은 1950년 대의 수산학 전공의 좋은 이인재 이부인은 현실 나중의 권총악군이 학위를 마치고 가주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같은 바라의 일이나 동문학으로 학위를 마친 박대수군은 동부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아 그럴줄안다. 소의 이들과있다. 박군과 같은 분야에서 최연의 학위를 끝낸 이강현군은 한인회장 재 지음 되어있는 장학금을 써준 수훈자이다. 지금은 교직원도 열심히 돕고있는 보기도 좋은 청년이다.

오늘날의 고려대학 사회학과를 창설하는 첫걸음부터 물리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창성군은 버섯을 찾아내고 곰나물을 기우어 내는 재주도 자기 전문분야의 학문 이상으로 잘했다. 전에도 씨아들에서 살 때는 한국 학생들은 쪼라는 말로도 라 잘했다. 과학학에서만 보아도 지금 포교인 신하락학에서 공헌하고 있는 김원정군 최군이 끝낸 우영덕군들은 도일같은 존재들이라. 지금 가주에서 교수직을 맡는 사업가들 평범 유종하군도 있다. 유군은 한인회 모임때면 그 과공학계 부침을 많이 맡아 맡아지는 노력을 부는 '장사'를 악가이었다. 보고싶다. 약학으로는 석사사래를 마치고 동우로 가서 학위를 마친후 모교 서울 대학에 있는 김병각군이 있는 군은 무척 젊잖은 학도이었다. 같은 서울에서 큰 해운사를 책임지고 있고 이대학 동창회 빌로 들곳 애반이 써주는 왕래는 회장은 1950년 대의 수산학 전공의 좋은 이인재 이부인은 현실 나중의 권총악군이 학위를 마치고 가주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같은 바라의 일이나 동문학으로 학위를 마친 박대수군은 동부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아 그럴줄안다. 소의 이들과있다. 박군과 같은 분야에서 최연의 학위를 끝낸 이강현군은 한인회장 재 지음 되어있는 장학금을 써준 수훈자이다. 지금은 교직원도 열심히 돕고있는 보기도 좋은 청년이다.

학에서든 흔하지 아니한 분야인데 한국 불교음악으로 일흔을 보내고 화악이 재학에서 가난하고 있는 이 병천군은 이쪽 분야에 시력이든 부채의숙한 이음일 것이라. 시력학으로 매듭을 지은 김남길군은 동부로 내려왔다. 그 앙상한 목청이 환변려 듣고싶다. 같은 방편에 남기심군이 있었는데 서울이 돌아가서 화악을 끝내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 독실한 청년학도인 영불 두나란 문학회 조씨가 깊은 열매 초심환군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학문적 장래가 촉망된다. 순서가 바뀌어졌으나 할공공화 산물로 차는 흥흥순군이 있다. 다만 청면으로 지금 서울에서 아주아려운 부부의 개척이 전성하고 있다. 그 고물리온 이구철군이 서울대학교로 갔다. 그 부인은 이구철과 구등도서관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맡은 천인자 이었는데 이대학 도서관을 마친 첫번 써서이다. 서울서술한 성품이었으나 한국어를 시작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감하는 것을 씩어서 보기도 한 번 비안한 적이 많았다. 오늘날의 한국어를 모으는 일에 초석을 두어준 고마운 이이다.

쓰라보니 두 노학생을 잊었다. 이노 학생이라는 칭호는 그들 자신이 자작해서 써왔던 것이므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여 그러고 쓴다. 흥흥순 노학생과 김중순 노학생이든 지금껏 이들에게 대한 경의는 가 서하지 않는다. 노학생을 no-학생이라고 해서 야만이다. 비싼 필사음을 아 막 지쳐없이 내었는 것이고 등록 학생이었던 에를 들릴 것들이 없다. 아가 나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노 학생이라고 일컫는지도 모르나 이들이 그럴리는 없을 것이다. 경로회이 방벽으로 오라고 초대를 수일전 이 받은 나에게 그럴수는 없으니. 바꾸어 말하면 생리적 나이를 연유한 초흥은 아니었는 것 같다. 적어도 나는 늙자로는 老, 자 이나 그릇은 한가지 일에 숙달 하라는 재의 용로 바꾸어 생각이 자연 리도록 훌륭한 문학생들이었다. 한국 고등학교의 기반은 마련하는 데 공헌이 많고 근간장으로 일 할이 하는 두 노 학생에게는 도비유학이란 권이 도 시간적으로 뒤떨어지지 아니했었지만 거 른하게 화악을 취한 시일이 마친 그들 거 현이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수 없다. 두 노 학생이 얼마 아니하면 생리학적으로도 노교수가 될 것이지만 아직 그런 직정은 아 니해도 될 것 같아 부럽다.

이 밖에도 시야를 사관이 많으나 권침 책임을 진 우리 보배 칸가 박시경 씨 원에게 거짓 약속만 계속 할 수도 없어 이 래로 끝내어 이 원고를 몇십문산으로 권 해야 되겠기 나중 기회로 비문라. 쓴 것이 잘못이 있더라도 허송받기 꺼리다. 1975. 10. 10

가을 병 방 경복

후배에 이어서 이런 편지가 왔다. "언니. 저는 가을에만 도지는 지병이 있습니다. 매 가을마다 아주 심하게 앓곤 합니다. 지금의 결혼생활을 생각해보고, 내가 두 아이의 엄마인 것도 있어 버리고 코스를 보고도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최후론의 "인생으로 봤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이라를 흥얼거리며 감 상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어주일 이쯤에 살고 나면 사는데 그냥 출근기도 하고 하니 특약이 있더라도 고치지 말고 그 남들이 생각중입니다. 장질부사를 앓고 나면 간병 없이 건강하라는 것처럼 각 을 가을까지는 내 정신도 건강하니가요."

친구가 한국에서 동생이 부쳐 왔다는 코스모스 씨와 꽃씨를 나눠 주기에 잔디밭 보서리이라 싶었더니 함께 피었다. 아기가 낫았이라도 길게 자는 날 나는 긴 나리 시간을 갖는다. 눈물 들어 보면 어느새 가을이 눈 앞에 있다. 살바라기 꽃씨를 간지르고 코스모스를 기른다. 문득 고향거리가 떠오 른다. 이맘때쯤이면 벌써 군 오징어 장사가 가스등을 켜고 골목거리를 지키고 자라봄엔 의어꽃도 화양게 피었겠다. 술하게 오리내리엔 학리산, 길과 등성이. 그리고 작은 찻집들, 라 그만두고 달려가고 싶 라. 안나고 싶은 많은 사람을. 아기가 팔 동안 나는 연못을 본다. 월호천 나는 왜냐 예인 했었다. 세상이 슬픈 일은 모두 흔치안 가졌지처럼 느꼈었고 벽이 그림이 좀 비 떨어졌어도 바로 걸여놓지 않던 라곤 할 수가 없었다. 처음 사랑했던 남자와 의 끝날이 아아 늦가을이었지. 가을이던 나도 뭐가 아플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생각 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민들을.) 고민후에 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어느가 을 나는 길게 기르던 거리를 팔았다. 기 머리가 나를 피움하는 대상 이기라도 한양. 그리고는 끝내 버렸다.

후배의 편지를 읽으며 그제를 생각해 보라. 라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천리 라시 한번 그제의 내가 되고 싶은 건 뉘 번덕일까? 사르르 뭐가 아프려고 한라. 아. 얘기를 꺼워서라도 또 바빠야 겠다. 한가 하나가 이런 잡념이 생기지. 나는 오 들 꼭 편지 때만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생 각들을 했다. 아기가 올 인가 보라. - Pullman에서 - (가정주부)

새 아기 소식
김 승용씨 ... 지난 8월 10일 둘째아들 득
남
문 군성씨 ... 9월 중 득남.

五洋食品店
FIVE SEAS

집에서 만든 순
한국식 음식 영가도 판매.
김치, 깍두기, 보쌈김치, 김밥
각종 정갈, 떡, 반대떡, 만두
한국 요리 일체를 주문 받음.
바느짐감도 주문 받음.

상점 시간 영랑
월요일 - 금요일
10:30 7:00
토요일 - 일요일
10:30 6:00

주소
543 N. 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63-6850, 525-2985

정주자동차
학교수호

이종호
차량 정비 및 세정

전화
SEATTLE - VE 9-3570
TACOMA - 588-9222
62-4181

전직
DENVER
정비사

◎ SERVICE 내용
★ ENGINE REBUILD (재장)
★ TUNE-UP
★ BRAKES
★ CARBURATOR
★ 기타 수리

◎ 영가 및 책임수리

◎ 가정 방문 정비

◎ TUNE-UP 요령 지도가 함
★ 비싸게 주고 고쳤다고
기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일단 문의 하세요. 책임
집니다.
★ 미제 차량 유행형.

나의 미국생활 오 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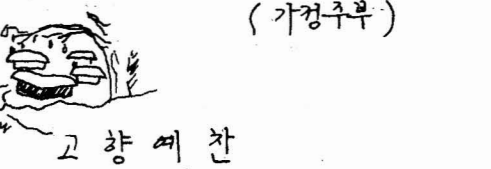
미국이나 가면 큰 벼슬이나 하는 것 처럼 편지들의 부러움과 권송을 받으며 김 포 비행장을 떠나지 못한 6년이 지났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겨우 비행기 에 올랐었다. 언제까지 모국에 오게 되려나 생각하니 러우 눈물이 쏟아졌지만 기차라는 남군을 생각하며 내러로의 미국생활을 그 리면서 원하는 교수를 만나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 때는 알찬 모습과 좋은 목소리를 보여 주리라는 희망으로 비행기 떨어도 잊은 채 버 국이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부둣가에서나 볼 수 있는 두편 갈바에라 철쭉한 열매를 한 아 빠를 보는 순간 몇몇만이 보는 사람이라 저편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을 까하고 좀 실망했다. 그러나 라 늙은 차이라 돌이 겨우살수 있는 아라에서 미국생활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므로 새 끼기 사람들의 차림이 걸소한 것 과 구려어 좋은 뜻을 입을 필요도 없고 모인 이나 깨끗이 입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서 처음에 내가 느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 했다.

학기 중간이라 학교 입학은 어려웠고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러우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었다. 일흔여야 있는 라 바깥한 일도 없고 위낙 학교촌이라 대부분의 부 인들이 바느질 공장에 다니기에 나도 아빠 를 설득시켜 일나가기로 했다. 생전 앉아 보지도 않은 power 베인이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못 몇 발 가기도 꼴꼴라 박았다 씨름 하라기 한랄도 못되 헤치고 감하고 목 해보고 야 말겠다는 생각이 바느질 학교에 들어갔 라. 일주일 만에 바느질 학교를 졸업하고 일 을 나갔다. 한달만에 몇몇 있던 사람보라도 러 팔 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 졌고 수입도 괜찮았다. 얼마후 씨아들로 오 가 되었고 큰어를 갖게 되었다. 얘기가 좀 내려야 할 단계가 되었다. 아빠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어찌나고 입학원서를 가지고 와서 입학수속을 하라고 한라. 밤새도록 성 각한 결과 공부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이 유는 둘이서 공부하라는 들라 깨대로 못할 것 같고 아빠가 목격할 걸상한후에 공부하 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일을 하려고 몇군데 알아 보았지만 그때는 영어도 잘못하고 돈도 바느질 일보라 나들 것도 없어서 일 못했다. 바느질에의 수습은 좋은 편이었으나 때때로 아빠는 무하게 했다. 돈은 있다가도 없었 것 에들의 효후는 돈주기도 못사고 1~5세 까지 가 성격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는 지금 두어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라는 것 이라. 아라에 babysitter 집에 갈때마다

업어를 절어지지 않으려고 들면서 억지로 들 어가는 모습은 하루종일 마음을 아프게 했고 회고하고 들으는 창문을 내라보고 아이 아이 하면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좋아하던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한번은 여경보라 일찍 babysitter 집에 갔더니 미국어들은 라 키에서 자는 라 미경이만 어두운 지하 실 방에서 일어나 들었는지 눈물과 토해낸 음식으로 범벅이 되어 기진 맥진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똥이 안고 일어나 들었는지 모 른다. 가끔가다 그제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얼마후 둘째애를 갖게 되어 일을 그만두니 제일 좋아하는 분은 아빠라. 돈은 있으면 있 는 대로 쓰게 되고 없었니가 그런대로 절약하 기 마련이다. 날씨가 화창한 때면 바깥바 람을 씩고 싶다. 물론 아파한 라 말하면 곧 drive 라도 하겠지만 훗날의 기쁨을 위해 갖기로 한다. 마음의 고향을 갈러 보 려고 piano 에 앉아서 옛날에 즐겨 부르 던 노래를 하나씩 넘겨보지만 어떤지 옛 날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만 부르 고 나면 힘이 들고 아이들 때문에 오래 앉아 있 을 수가 없다. 나려라 피아노만 치라며 큰 애는 계속 노래 부르면서 내가 노래부를 기리 를 주지 않는다. 라라라 아빠가 오시면 들 악을 이해하는 고이기에 아이들을 반으로 데리고 가서 권하는 대로 같이 놀아 주신다. 절소가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지 못해 이 아해 하시는 아빠라 집에서라도 음악공 부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슬거부르는 "여 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편 23편과 "아부동아, 나 도절리의 "세리나여" 란 은 몇개의 노래를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 지고 공명히 감상권이 된다. 또한 아이들 들 라 저저놓고 책과 씨름하고 있을 아빠 를 생각하면 편히 쉬라는 것이 미안스럽기만 하라. 위로할 때면 전곡을 듣고 슈만의 딸 과 같은 음악을 들으며 그 선율을 따라가 노라면 어느듯 위로음은 사라지고 음악의 신비성을 라서금 깨닫는다. 음악이란 열아 나 아를라라. 나에게 음악과 신앙이 없 었다면 그동안의 미국생활의 고갈음을 어쩔 게 이겨냈을까 생각한다. 이제 노래할 자신이 없어 무대에 서는 것은 리하고 그제 그제의 불키기에 맞추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느끼며 아빠와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하 며 알뜰한 살림을 하는 것이 러보람되지 않나 생각한다. 일요일은 하루종일 아빠가 아 이들과 지내시는데 아이들 들이서 아빠 에게 매릴러 강지도 쉬시기 하지 않는다. 거면이면 아빠는 강간도 오락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할못된 것 들고 쳐주시기도 하신다. 할랄된 꼬아도 누 나를 따라 손뼉을 치며 말도 안되는 말로 노래를 부르고 큰애는 일주일중에 이시간을 제일 좋아한다. 큰애도 이제 5살, 동생 아이들과 어릴 때 유치원에 걸여가는 모습

을 선력에서 지켜보며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 재견하고 웃어 진다.



고향 예찬 박 알

저 하늘 저 구름은 무슨일 떠르는가
저 저름 저 바람은 무슨일 떠르는가
한정성 떠돌어 신세 옛고향과 고향 찾아

그러고 나에게는 돌아올 고향 있고
돌아와 왔아서 불 옛자취 옛정있건만
력향서 남고 또 자란 우리애들 고향도 없어
중에서 고향이로 못있어 고향이라
나갔라 돌아오고 나갔라 돌아와서
고향서 중기시라가 고향서 가진 조상들

저 하늘 저 구름은 저 저름 저 바람을
이래지 이산천이 이행길 저물음이
모두가 옛날 옛정을 비추주며 맑은하라

고향엔 고향라도 인정이 있어 살고
라향엔 라향라도 인정이 있어 살기만은
고향에 비길 그 인성 이세상안 또 있은가

피스한 문명속에 피스한 문명속이
조조우 감겨사는 조조한 심정이라
옛고향 그리는 마음 옛조상 그리는 마음

구름에 변화 많듯 세태의 많은 변화
바람에 변화 많듯 인성의 많은 변화
저고서 돌아온 고향 고안은 가도 옛산천 남쌌미

이세상 나뉘었다고 말들을 하지만은
옛세상 조상있고 들아있고 고향있고
이어를 가산도 있어 한 평생 고향살아

옛세상 나뉘었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옛사람 그해 평생 고향속 조상속
일가속 인정속이 즐겨왔던 그 평생

그누 옛세상을 나뉘었다고 말하나
지금의 50년전 그세상 그옛세상
고향속 조상속 일가속 그 인정속 살았라

세상이 낙원 싶다면 그아마 고향일거라
세상이 선경 싶다면 그아마 고향일거라
옛 조상이 이치알아 정성주르 고향살아

(이 시조는 최근 출간된 "원해시집" 중의 한 수다)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

워싱턴주 한인회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포 사회에서 한인회가 쓰여질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넉넉하여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한인회를 돕는 의미에서 1975년도 한인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5불 이상, 만 18세 이상의 학생 및 독신자. 3불인데 아래양식 참조, 주소, 성명, 금액을 정확히 적어 한인회 저부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를 보내실 때는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금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 분이면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지상 여말 발령되는 한인회보 이명단을 발표하므로써 영수증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년 한인회비
\$
성명: _____
주소: _____
보내실 주소:
MRS. LADELL SMITH
921 LAKESIDE AVE S.
SEATTLE, WA. 98144

영어 가르치기
원합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개인, 그룹 다 환영
시간당 \$4, (325-6323)으로 연락 바랍니다

FROM THE HEART OF THE GARDEN



日光園キャバレー
NIKKO GARDEN
1421 - 6th AVENUE • SEATTLE, WA 98101
Telephone: 624-3947

(서아를 - 워싱턴 한인사회 이년사 제5호)
韓人會 創設期의 餘談記

이 선복
세월은 덧없이 가가 마련이라. 책상위에 놓여있는 칼력이 하루하루 알뜰해지며 아침이 한창씩 쫓겨야 할 때 이대로 가려는구나 싶어 문득 감상이 짙은 한라. 한인회 초창기에 대하여 써갈라는 청탁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발기인회니 창립회를 가졌던것이 바로 아재같은 느낌기 채사라지지 않고 싶지만 벌써 제 9회 정기총회가 문턱위에 서있지 않나!
한인회 초창기에 관해서는 그 당시 공적이 많은 선배님 선배들이 이 지역에 많이 계신으로 이분들을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그 때 사상이 잘 전달되고 있음을 믿고 또 한인회 회의록에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고있으므로 몇자 간략히 적기로 한다.
우선 한인회가 출범하기 이전 이 지방에 살고 있는 교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그중 여러 수가 학생가족이므로 모든 행사는 학생회 주최로 하리 학생은 물론이며 일반교포까지로 권위 감성하여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갖게 마련했었다. 심지어는 학생회 회장 선거하는 데도 교포도 같이 가감하여 추천하고 투표도 하는 것은 그때 상례였다. 그러던중 1965년쯤에 이르러서는 일반교포 가족수도 상당수가 갈 함으로 이제는 학생회 신세만 질게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여 여러 선배 유지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해준것이 바로 발기인회 역할을 했던것이다. 이때 모인수는 집소 유인이었으며 장소는 MEANY HOTEL (현 UNIVERSITY TOWER HOTEL) 회

의실에서 구체적인 한인회를 위한 구상을 하였던것이다. 그후 창립총회 U.W 학생회관에서 약 130여 인사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 되었으며 그렇게 상항 총영사인 청도순씨도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어서 인상깊게 기억에 남고있다. 이 총회에서는 이창희, 서주수, 최계순, 권계상, 이선복이 초대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후 5인까지로 이어 창희선생님을 회장으로 선출 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리가 조직했던 우리 한인회 주 목적은 현 회칙이 명시되어 있듯이 최원간의 권익을 증진함이라니, 사회적으로 상호협조니, 한미간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일이라든가 등의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관순한 최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 때 연중행사도 지냈던 12월중이 '아리랑의 밤' 그리고 이곳 한인회와 밴쿠버(CANADA) 한인회와의 야유회 지금까지도 잘 계승하여 오고것을 보면 넘쳐난 마음 이루 말할수 없다.
한인회 초창기에 대하여 이야기가 끝 나기전에 한인회 발족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이미 이 지방을 떠났거나 혹은 회원들간에 광 알리지 아니한 분을 소개 한다면 서주수 선생님의 사모님과 장준해 선생 (정경화양의 부친)을 꼽을수가 있겠다. 서 사모님께서는 창립의 회감을 기념하여 한인회를 위하여 인색기를 기증하셨다. 최오나 동지서등 인쇄하는 데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는 9년전에 이창희 선생으로부터 TRADE IN 한것임) 정준해 선생께서는 발기인회를 가질 때 COCTAIL PARTY 비용을 부담 하여 주셔서 그때 모였던 분들이 늦게

까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분들의 호의에 대하여 공적으로 발족가 찬 안 되었기에 이 기회에 선성히 감사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나의 소견을 제시해 볼까 한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 가노라면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 마련이라. 남이 보기에는 래렬하고 안이한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말할수없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애로가 있기 마련이다. 한인회라고 해서 예외는 되지 않을것이다. 최보라는 말이 있듯이 숲이 만치되어 방향 감을 잃고 인분을 거듭했다 해도 무슨 진보가 있겠는가?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하려면 좀 더 큰 힘이 나고게 마련이고 마침내는 처음에 지향했던 길이 도달할것으로 확신하라. 앞으로 한인회 임원이 최일분들은 한인회를 위한 일정한 방향 설정을 한 다음 이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계속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교포로서의 큰 등래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한다. (편집자주: 이 글을 써주신 이선복 선생은 그 당시 초기 한인회의 발기인 역할과 또한 제 2회 회장을 역임 하셨다.)

이 종관씨 골프대회에서
- 삼 번승 -
골프대를 잡은지 얼마되지도 않은 이종관씨는 3회의 골프대회인 7월 골프 정기 대회 (서아를 골프클럽 주최), 8월 정기 대회, 인더내셔널 엑스포 골프대회에서 각각 우승했다.

구독 신청서

- 한국일보의 미국소식4면 본국지8면, 총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매일12면을 발행하는 신문은 오직 한국일보뿐입니다.
- 한국일보는 교포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입니다.
- 한국일보는 서울과 같은날자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신문입니다.
- 주간한국도 매주 한국일보독자 누구에게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KOREA TIMES Information Call (206) 228-6211 or (206) 622-7374 (GIL R. KIM)

THE HANKOOK ILBO & KOREA TIMES
Seattle Bureau
P. O. Box 2086 * Renton, Wa 98055

여자일꾼모집

통조림 공장에서
노동할수 있는
튼튼한 부엌
를 구함.

시간당 \$ 2.90
연락처:
767-4420
유 창림

필신(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은 주택알선
- 토지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의를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 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기부금 내신분

- 김 창성 10#
- 구 상진 10#
- 조 현기 25#
- 이 오윤 20#
- 박 시정 10#
- 김 명순 10#

한신회비 내신분

- 전 기수 5# 이선복 10#
- 손철 경숙 15#
- 심 상천 10#
- 박 시정 5#
- Gahe Hall 20#
- Keong Sam Joung 20#
- Im Ok Downing 10#
- 서 문상 10#
- Im Su Ro 5#
- 김 명순 5#



안병용 부동산보험

REALTOR® M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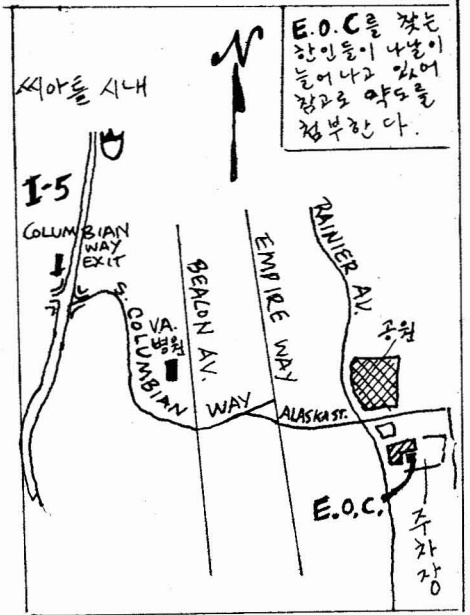
Prudential

씨애틀
838-2010
타코마
927-2271

최상질과 봉사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PHILIP BYUNG-YONG AHN 안병용
부동산 집·아파트·땅·매매·관리·전세

보 험 차·건강·교육·저축성 생명·IRA



많은 사람의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
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길에서 주는
선전물, 신문책이 떨어져 또는 인쇄물,
등등을 나는 배움지 않고 다 읽는다.
(자세히는 못 읽더라도)
이 한이러라도 보기에는 초라하지
않다. 바쁜 시간을 틈내 고문도 없는
원고를 써주시는 분들, 글씨를 써 주
신 분, 인쇄해 주는 분, 이렇게 해서
신분이 나오면 이 신문을 보내기
위해서 인원은 밤 이슬 두둑까지
신문을 잡고 주소를 찾아야 한다.
나는 우리 한인교포 모든 분들이
이 "수고"의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
를 권하고 싶다. "수고"의 기회는 형제
과 이해와 경호를 가르쳐 준다. 중치점
배우기 어려운 미덕들이다.
배우기 귀찮은 미덕들이 아니었다면
이 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주 힘들
했을 것이다. 때때로 미국이 사는 우리
처럼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사작성은 오공부장이 했다.
마지막 밤을 며칠 앞두고 김반이
객성이 많아 예방을 세우는 Mrs. 우계감사.

가을이 왔다. 교정의 나뭇잎들이
노나기처럼 지고 있다. 가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마음이 러전
해진다. 그리고 몸씨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국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병을 앓을 여유가 없다. 그것은
장근로 다행한 일이다.
나는 이 회보를 맡은 후 많은 것
을 배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의 노고'를 인정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전에 나는 원만한
인쇄물은 보지도 않고 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인쇄
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장

동양상점

한국 고깃배와 맛을 자랑

(주 소)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 월-토 10:00AM ~ 8:00PM
· 일요일 12:00AM ~ 6:00PM
582 - 5565

수고 하신 분들
글씨: Mrs. 우영덕
기사작성 및 기사모집: 오계희씨
인쇄: 김길량씨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Ave. N.E.
Seattle, Wash. 9812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